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학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임규철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지? 학교는 14일이 학사 종료일이라서 기말고사와 채점 그리고 종강모임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인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투덜대는데 저는 왜 이리 속절없이 백발은 늘고 빨리가는지...

학교 기금 모금액은 동문 선후배님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대 교수님들의 전원 참가와 최고위 과정 원우님들과 법무대학원 원우회와 총동창회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동문 변호사분들도 고맙습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작년에는 법무대학원 모집인원이 50명 중 30명만 모집이 되어 미달이 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올해는 1학기 15명 외 2학기 최소 30명은 될듯하여 다행입니다.

의회업무와 도심 재정비 법무 전공 신설 덕택을 본 듯합니다. 좋은 강의와 탄탄한 네트워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 85학번 성안 스님과 김인범 박사와의 시절인연을 이번 News Letter에 실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성안 스님의 개인적 인연과 해인사에서 다비식 때의 슬픈 기억이 나서 한동안 멍했었습니다. 이번 법원행정고시에 이수현과 이다경 후배님들이 최연소 합격 등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합격 수기도 올렸습니다.

다들 바쁘시죠? 그럼에도 ‘국률’(national rule)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입니다. 사무실이나 집 등 어디서라도 짧은 운동이라도 하심이, 술담배도 끊거나 적절하게... 이 여름 잘 넘기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 6. 17.
임규철 올림

행사소식, 동문소식 및 학과소식

1. 기부금 소식



- 성안스님(법, 85/ 故 임득균) 친형 임각균 (산업시스템학과 82) 이트너스(주) 대표이사 장학금 고시반 지정 총 50,000,000원
- 김후곤 서울 (前)고검장 20,000,000원
- 교수: 임규철, 강동욱, 최창렬, 홍선기, 김도현, 김경제, 오미영, 홍대운, 이용중, 이훈종, 김재선, 최봉석, 변종필, 이철호, 박영길(@), 신동원 총: 18,500,000 +@ 원
- 박사: 김인범, 송현민, 전의석, 권기일, 이영숙, 김거룡, 이종윤, 김용성, 김태환, 박세훈 총: 12,000,000원
- 변호사: 최윤종, 황용, 정세형, 강문찬, 이민형, 김성훈, 김영철, 장원선, 박희성, 김주오 총: 11,000,000원
- 세무사: 지하정, 차하늘 총 2,000,000원
- 최고위과정: 도시재정비(김덕기), 부동산 탐정(윤현종), STO(권세준), 탐정 PIA(하금석), M&A(정민계), 총 14,000,000원
- 법무대학원 임철호 등 원우회(3,000,000), 손시중, 배성한, 이용우, 정범호 등 총동문회 총 7,500,000원
- 합계: 135,000,000 +@ 원

2. 행사 소식

- ① 5월 10일 법과대학 법조동문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
- ② 고등학생 대학 탐방 : 5월22일 법과대학 학장 면담 시행 (밀양여고 1학년 김채은 학생 외 4명)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③ 동국대학교 백상대동제(봄 축제) : 5월28일~30일 가수 잔나비, 데이식스, 10센치, 박명수, 싸이, 뉴진스 초청.



④ 후원의 밤 개최 예정 : 6월 21일(금) 17시 30분. 서울신라호텔. 법학과 3 Table(26명) 및 후원기금 1억원 배정(목표 달성)

④ 법과대학 불기 2568년 연등회(연등행렬) 동참
- 법과대학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연등행렬) 동참. 지도 교수 및 법사스님, 학생 15명 참가.



3. 불교행사 소식

- ①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佛法)단체' 창립법회 개최
 - 5월 10일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佛法)단체'의 창립 법회 개최
 - 강동욱·임규철·홍선기 지도교수, 동진·정현스님 지도법사, 학생 신도 68명 참가.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1시 법회 개최 예정.



② 5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Temple Stay 참가(13명).



③ 6월 14일 법회 특강(광우 스님) 장소: 정각원

⑤ 법과대학 법회 5월 31일 개최 : 법회 및 꽃꽂이 행사

4. 교수동정

- 현 법과대학 교수진(13명)
- 강동욱(형사법), 이훈종(상사법), 변종필(형사법), 최봉석(행정법), 최창렬(민사법), 김도현(기초법), 오미영(국제법), 김경제(헌법), 임규철(과학기술법), 이용중(국제법), 김재선(행정법), 홍대운(형법), 홍선기(헌법)

5. 법무대학원 소식

- ①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대상 34명)
- <https://gslaw.dongguk.edu/main>

**2024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편)입학 모집**

- 원서접수 2024.05.21.(화) ~ 06.18.(화)
- 문의처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42

안내 바로가기

원서접수 바로가기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 ② 법무대학원 2024학년도 춘계 MT 시행
 - 법무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춘계 MT 행사. 4월 27-28 일. 대부도 마리나호텔.



- ③ 법무대학원 법학과 도시정비법무, 의회법무전공 신설
 -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 및 의회법무전공 신설. 도시정비법무(주임교수 김덕기), 의회법무(홍선기 교수).
- ④ 법무대학원 최고위과정 신설 및 입학식 개최
 - 법무대학원 내 두 개의 최고위과정(기업인수합병(M&A)&미래경영최고위과정(주임교수 정민계),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김덕기) 신설. 의회 및 도시정무법무 2개의 전공과 최고위과정의 융합의 지속적 시도.



6. 법과대학 소식

-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헌법전공)의 유인근 학생(제1저자)과 신세리학생(제2저자)이 지도교수인 홍선기 교수와 공저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 투표서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KCI 등재지인 외법논집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 이번 논문에서 저자들은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아직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선거비용 문제와 사표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임을 지적하고 사전투표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전국 단위의 투표소 설치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국제법전공)의 김민재 학생(제1저자)이 홍선기 교수와 공저로 "도핑 개념의 확대를 통한 e스포츠 대회에서의 AI 도핑 규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KCI 등재지인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 이번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AI 도핑은 다양한 사람들의 플레이를 학습한 AI를 공식 대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능의 AI를 공식 대회 중에 사용한다면 이는 '자신의 신체적 역량 이외에 경기력의 추가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모든 수단'이라는 도핑 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이고, e스포츠의 무결성을 해쳐 e스포츠 대회의 무결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서 제재하고 있는 도핑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공식 대회에서 경기 중에 AI를 사용하는 'AI 도핑'을 규제하고, e스포츠 대회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보전하여 e스포츠 대회에서 등장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7. 비교법문화연구원 소식

① 2월 19일 'Aurélia 판사 특강 - 국제 형사사법의 역사'를 주제로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불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② 2월 29일 '노동·사회법 분야 최근 신진학자의 연구 동향'을 주제로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③ 3월 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제134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④ 3월 30일 '한국형 전문탐정양성방안'을 주제로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탐정학회가 2024년 제2회 한국탐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⑤ 6월 15일 '학대피해아동 상담과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주제로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아동예방법협회, 한국아동보호학회, 무궁화복지지ILD가 제68회 한국아동예방법협회, 제18회 한국아동보호학회, 제17회 무궁화복지지ILD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8. 합격 후기 및 소감



법과대학 법원행정고등고시반 소속
경찰행정학부 2018111292 이다겸

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학부 18학번 이다겸입니다. 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최종합격을 하게 되어 이렇게 후기를 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소방관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며 막연히 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행정고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 다양한 법과목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업특강을 통해 법원직 공무원을 알게 되었고 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부터 수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민법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공부했던 부분이었는데도 문제를 풀 때는 잘 기억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민법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의 해설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전부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23년도에 법원행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했습니다. 법원행시 특성상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최신판례들도 다수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보되 기출문제집의 꾸준한 반복 및 최신판례를 원문까지 읽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습니다.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그리고 23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에 입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수험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법학과 이수현 선배님(동회차 합격생)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스터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헬스장에 나가 1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었고 수험생활로 지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국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도움으로 법원행시 최연소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같이 수험생활을 하고 함께 최종합격을 한 법학과 이수현 선배와 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임규철 학장님, 홍선기 교수님, 고시반 담당자이신 박성준 선생님 그리고 동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법과대학 법원행정고등고시반 소속 법학과 이수현

저는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최종 합격한 법학과 16학번 이수현입니다.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학 전공을 통해 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사무관으로서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며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하였고, 다소 늦은 나이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었기에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약 3년 정도였고, 올해

(2024년) 처음으로 1, 2, 3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수기를 통해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편이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외향적인 성향을 살리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거의 매일 고시반에 출석하고 개방된 공간인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다른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를 공부하는 환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긴 수험생활을 하면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기상 스터디를 했고, 특히 같은 고시반에서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후배와 함께 아침 8시부터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강제로 일찍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도 다경 후배(같은 회차 합격생)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로 취약한 과목을 보완해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서로 응원하며 이겨낸 결과 함께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공부와 관련해서는 1차든 2차든 기본서를 잘 정리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도 기본기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2차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7주밖에 되지 않았기에 평소에 기본서를 많이 읽고 소화하려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공부는 결국 법조문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공부해 놓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며, 기본서의 목차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소송법 같은 경우는 의의, 요건을 암기하고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며 공부하려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수험생활이었지만 동국대학교 안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과 고시반의 지원의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국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대한 감사함과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저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임규철 학장님, 홍선기 교수님, 고시반 담당 박성준 선생님 그리고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院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9. 수상 후기

2024 KAIST 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산율 감소’를 위한 AI 기반 피부 부착형 유산 위험 측정 기기’로 대상 수상한 법학과 21학번 박인아, 이다은, 허한나입니다. 우선 좋은 대회를 제안해주신 흥선기 교수님 덕분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소개로 해당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4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해당 공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공모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열정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공자가 아니었기에 더욱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점이 본 공모전의 취지와도 맞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산율 감소’ 및 ‘출생률 증가’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사회 문제에 있어 스스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 기고 글

성안 스님(임득균, 85학번)과 김인범의 시절인연

인연(因緣)

汝와 품로 상대방과 자기를 표현하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조사 이외에 모든 단어를 한자로 쓰면서 흔하지 않은 사자성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85학번 입학 동기 중에는 현역이 별로 없어서 호칭과 관계가 어색할 때 갑자기 가까워진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주소를 물어보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위와 같은 편지를 계속 보내주었다. 나는 그 친구가 보내 주는 편지 횟수에 절반쯤 답장을 한 것 같다. 그 편지에는 당시 민주화에 대한 친구의 고민, 꼭 읽어야 할 책, 가족의 사정 등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만의 솔직함과 큼직한 글씨체에 반하여 편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믿음이 쌓여 갔다. 당시 나는 내 스스로의 고민과 일부 동기들과의 불화로 상처가 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친구는 2학년을 마치고 고향인 흥성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고, 나는 군대 입대를 미루고 공부를 하는 척하면서 계속 놀았다. 그 친구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였고, 내가 학부를 졸업할 때 참 고급스러운 우산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석사과정 중 학과 조교를 했는데, 당시 학과 내분이 심하여 마음이 상했을 때라 그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힘이 되었다.

나는 석사 3학기 수료 후 군대로 도망을 갔고, 그 친구는 성수동의 모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나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을 미루고,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서로 직장인이 되어 압구정동에서 가끔 만나서 소주잔을 주고받았다. 회사업무에 시달리는 중에도 그 친구의 얼굴은 늘 맑았다. 당시 그 친구는 동주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봉천동의 연화유치원에서 동주 스님을 따라 생계를 위해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갔을 때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하였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나는 그 친구 본가로 전화를 하였고, 그 친구의 자당 어른께서 편지 친구를 매우 반가워 하시면서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인사에서 승려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정식 승려가 된 후 학교에서 만나 자주 보자고 했지만, 나는 직장생활에 치이고, 그 친구는 수행 생활에 몰두하면서 전화만 주고받고 상당기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해인사에 자리를 잡고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이 되면서 다시 일 년에 세 네 번 만나 사하촌에서 곡차를 얻어 마시기도 하고, 스님들이 이용하는 길로 가야산 등산도 했으며, 승방에서 생로병사에 대한 심오한 설법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동기가 보낸 문자를 보고 그 친구가 88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입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머리 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친구가 임득균 성안 스님이다. 성안 스님의 다비식 때 많은 저명인사들이 추모를 하였지만, 전날 비가 많이 내려서 불이 온전하게 불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 갔다. 결국 더 지켜보기가 어려워져서 다비식장을 먼저 떠나왔다.

올해 성안 스님의 장형(동국대 선배님)께서 성안 스님의 이름으로 법대에 거액을 기부하셨다. 성안 스님은 그렇게 법대 후배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다. 나는 성안 스님의 입적 후 아예 절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어떠한 불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인사로 가서 성안 스님께 안부를 여쭙고, 온통 한자로 써 내려간 편지를 전해야겠다. 늦게 찾아봐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도 드려야겠다. 그리고 성안 스님이 옆에 같이 걷고 있다는 믿음으로 녹색이 찬연한 가야산 등산로를 올라야겠다.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18호(2024.06)

11. 참고 칼럼

법률신문 2024년 6월 14일자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법학에 대한 오해 혹은 편견

요약 : ‘산업보안학’ 등의 신설학과에 진출한 법학전공 학자들은 그 세부전공이 지적재산법, 형사법, 행정법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 관련법을 해석하는 전공자들이다. 문제는 업적 평가자가 법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자 자신의 전공분야(예컨대, 물리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 견주어 법전(法典)을 토대로 지적재산법해석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을 폄하할 때에 발생한다. 가령 “왜 영어로 논문을 쓰지 않느냐?”라든가 “왜 SSCI 학술지 게재 논문이 없느냐?”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할 때이다.

한국 법학은 일부 세부전공을 제외하면 모두 서양법학과 법전을 수용한 것이다. 즉 로마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유럽 여러 나라의 법전 편찬 작업의 성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양의 산물인 법전을 운용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법적 사고를 익힌 법률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어로 표현된 법학이 필요하고 자국의 법학자가 필요하다. 자국어로 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법학자가 탄생하였을 때 비로소 법학의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우치다 타카시 지음/정종휴 옮김, 《법학의 탄생》, 박영사, 2022, 408면).

그렇기 때문에 법학연구에서는 법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과제이며, 또 법전을 비교·법제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법학은 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해석하여 이론을 정립·전개하는 것이므로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당연한 전제이다. 그 귀결로 법학전공 연구자에게는 일부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연구실적으로 SSCI를 요구하지 않으며

KCI 학술지의 논문 게재만을 연구실적으로 요구한다.

만일 법학전공자에게 자연과학이나 공학분야에서 요구되는 SSCI 연구실적을 요구한다면, 법학전공자가 융·복합형 신설 학과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산업보안학’이 한국 현실 사회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그에 관한 법학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보안이란 결국 법률제도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보안학’ 같은 학문분야에 법학전공자가 진출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는 한국의 법률제도와는 동떨어진 채 ‘기술 동향’이나 ‘수치 분석’ 등 이론 그 자체를 농(弄)하는 것에 머물고 말 것이다.

원문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607>